



더민주 광주선대위 출범 2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열린 더민주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광주 지역 출마자들이 4·13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서 'DJ적통' 논쟁 후끈

더민주 김홍걸 "야권 분열세력, 아버지 반대의 길 가"

국민의당 천정배 "DJ와 함께한 정치인 모여 정체성 지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을 보름 앞둔 29일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선거제에 돌입했다. 더민주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통을 서로 자처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4·13 총선 광주 시민과 더불어 경제살리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 기자회견을 했다. 김홍걸 위원장과 박해자 의원(시장 위원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담당(후보자 대표), 임택 시의원(광역의원 대표), 김점기 남구의회 의장(기초의원 대표)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시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호남의 적통'임을 강조하며 지지자를 호소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아버지(김대중 전 대통령)는 평생 호남 고립을 막으려고 노력하셨고 다른 지역·정파에도 손을 잡아서 결국 정권교체를 이루셨다"면서 "야권을

분열시킨 분들은 그 반대 길을 가고 있다. 더민주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지 않고, 비난만 하지 대안을 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당 분들은 탈당해서 야권 분열을 만들었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국민의당을 '야권 분열세력', '호남 자민련'으로 규정하고 "광주가 야권분열의 오물을 뒤집어줄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시당은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옮긴 세력, 더민주에 당적을 두고 상대 후보를 돕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복당을 불허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같은 시각 광주 광산구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선대위 '광주 시민' 출범식을 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열세로 자체 분석한 광산을 권은희 후보를 지원하려고 더민주 이용섭 후보 선거사무소 맞은편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세몰이에 박차를 기했다.

최선옥·이건태·송기서·최경환·김경진·김성환 등 경선 참여 인사들과 총선 또

는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들의 조합으로 선대위를 꾸렸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주요 정치인이 모여 있고 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반드시 야권재편을 이루고 내년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며 주장했다.

천 공동대표는 또 "더민주를 불행하게도 이미 수권능력을 잃었고, 특정계파의 패권만 판치고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더민주로는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수 없다"면서 "호남은 표만 주고 이용 당했고, 더민주의 정치적 허점까지 되고 말았다"고 더민주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호남주도의 정권교체를 이룰 정당, 낙후를 극복할 정당,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할 정당, 정권교체에 앞장서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 당은 20대 총선을 막장 공천으로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적통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DJ의 진정한 적통은 광주시민"이라고 지적했다. /최현배기자 cki@

광주 여성 공천자 10명 역대 최다... 女의원 몇명 배출할까

총선 프리즘

오는 4·13 총선에서 광주지역 여성 공천자가 1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후보자가 증가했으며 여성 국회의원 수도 제19대 총선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4·13 총선 여성 후보는 신나리

(동남 갑)·이은주(서구 갑)·양향자(서구 을)·강은미(서구 을)·장세라(북구 갑)·김해정(광산 갑)·권은희(광산 을)·문정은(광산 을)·최경미(광산 을)·한남숙(광산 을) 등 10명으로 광주 전체 후보자 43명의 23.26%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여성 후보자 4명 보다 6명 많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민중연합당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의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순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 출마지역구는 8곳 중 6곳인데, 이중 몇 개 지역에서 여성 당선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광주·전남 역대(9대·16대·19대) 지역구 여성 의원은 단 세 명 뿐이었다.

서구 을에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에 맞서 양향자(강은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천 후보와 양 후보의 박매지 구도에 강 후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광산 을에선 권은희·문정은·최경미·한남숙 후보 등 4명이 더민주 이용섭 전 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두 지역구는 어느 선거구보다 여성 후보 당선 유력지로 꼽히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박준영, 유권자가 뽑은 '좋은 후보'



국민의당 박준영 영암·무안·신안 후보가 29일 '유권자가 뽑은 4·13 총선 좋은 후보'로 선정됐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후보는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1의 이익보다 소중히 하는 후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중복지 되고자 하는 후보 ▲살아온 과정을 통해 전 문성과 헌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후보 등 헌법적 가치와 철학에 투철한 후보 등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형석 "연대 거부한 安, 결과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 을 후보는 29일 야권연대 거부의를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관련 "새누리당 2중대임을 자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3%p 이내 득표를 차 초접전 지역이 무려 24곳이나 된다"며 "새누리당에 개헌저지선을 내줄 경우 대한민국은 그 야말로 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책임은 안 대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현 사무소 개소... "납은정치 청산"



새누리당 양병현 광주 서구 갑 후보는 29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엔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해 양 후보의 필승을 기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광주가 바뀌고 지역이 발전된다. 양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양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광주에서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납은 정치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지방선거 공천 개입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후보와 동남을 선거구 소속 시·구의원 8명은 29일 지방선거 공천에 불공정하게 개입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지위가 아닌 역할을 나눈 동지적 관계의 지역 일꾼임을 선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지방선거 공천에 불공정하게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원외정당 민주당 당직자 "이용빈 지지"



원외정당인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당직자들이 29일 집단 탈당 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광주시민으로 돌아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며 "그 첫 번째로 더민주 광산 갑 이용빈 후보가 광주정치의 정상화와 정권교체에 꼭 필요한 인물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좋은 후보 이용빈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우, 나주·화순 출마 선언



새누리당 김중우 나주·화순 후보는 29일 4·13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 지역 발전의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출마표를 던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나주·화순은 특정정당이 40년간 독주하면서 지역 발전은 커녕 현재는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저를 한 번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김해정, 화물운송료 삭감 규탄 기자회견



민중연합당 김해정 광주 광산 갑 후보는 29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아자동차와 글로벌의 일방적인 운송료 인하로 화물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안된다"며 기아자동차와 글로벌의 횡포를 규탄했다.

김 후보는 특히 "화물연대 카캐리어 분회는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하중 "구태정치 청산 중대 갈림길"



무소속 김하중 광주 서구 을 후보는 29일 '김하중이 승리하면 다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러한 정치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호남정치 복원과 지역발전, 미래를 위해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 필요하다"라면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히 "서구 을 선거구는 구태정치 청산이나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대 갈림길"이라며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더민주 현직 시·구의원 "홍진태 지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동구의회의원 등 5명이 더민주 홍진태 광주 동구청장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광주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동구가 그동안 발전의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서 "구가 필요로 한 경제문화 행정경험을 갖춘 새로운 일꾼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주민의 총의를 모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혜령 "동료들 지지선언, 승리로 보답"



무소속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29일 김성숙 동구의회의원이 국민의당 탈당 이후 자신을 지지선언한 것과 관련,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김 의원의 진정성 어린 심정을 공감"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저는 동구의 행복살림꾼인 김 의원의 동구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시대착오적인 구태 정당정치의 청산을 하려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희망찬 대장정에 동구주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굿모닝타운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카페, 미용실, 병원 적합

- 전용 289㎡ (87평) 2/3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 (대출 5억) 실 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대출 20억) 실 투자 6억5천만원

무인텔 매매

화순 도곡 온천관광 단지내 최근 올리모델링, 성업중

- 객실 28개 및 내 외부 올 리모델링
- 매 23억 (대출 14억5천) 실 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라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별군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